

속살 몸짓 유희의 무대

세계·한국·광주 '3색 무용'...20일 개막 국제공연예술제서 선보여

‘무용, 환율한 세가지 빛깔’

오는 20일 개막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비롯해 웅재 오닐 공연 등 '명품 공연'들이 즐비하고, 이탈리아 산 카를로 극장 초청, 오페라 갈라 '투란도트'는 이미 매진된 상태다. 모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등 광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무대를 선보이는 무용 장르 역시 관심이 높다.



김충한 무용단 '장희빈'

▲ 세계의 흐름-‘로미오와 줄리엣’(20일)

이탈리아 아메르 발레단의 작품이다. 광주에서 거의 접하기 어려운 외국 무용단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화제가 된 작품으로 광주 공연 후에는 서울세계무용축제 무대에도 선다.

무용단측이 홍보용으로 배포한 DVD를 통해 미리 감상한 이번 작품은 모던 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스타일의 '발레'라는 점에서도 신선한 충격이고, 농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을 배경으로 전개된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롭게 해석했다. 특히 환풍기를 형상화한 원통형의 무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추는 2인무는 때론 에로틱하고, 때론 애절함을 보여주며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근육 하나하나까지 움직이는 몸동작도 인상적이며 캐플릿가와 문테규가의 대결을 그린 군무신 등도 눈길을 가는 대목이다. 조명과 무대 세트는 한편의 현대미술을 보는 듯 환상적이다. 그리고 피날레, 붉은 무대 세트가 등장하고, '죽음'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은 가슴에 오래 남을 명장면이다.

▲ 한국의 미-‘장희빈’(27일)

서울무용계 대상 수상팀인 김충한무용단의 작품이다. 지난 6월 서울 초연 당시 제작된 DVD로 감상한 '장희빈'은 조선시대 판문과탈 장희빈을 소재로 한 만큼 강렬한 무대와 의상, 역동적인 동작이 강한 인상을 준다.

더불어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섬세한 표정연기와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몸짓이다.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속죽과 장희빈의 2인무, 적색과 푸른색·흰색이 어우러진 농염한 의상을



이탈리아 아메르 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입은 장희빈이 교태로운 몸짓으로 속죽을 유혹하고, 달래고, 흥분시키며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간간히 속살을 내비치며 손끝과 발끝까지 감정을 싣는 장희빈의 연기는 기억에 남는다.

작품의 시작을 알리고, 이후 극의 흐름을 이끄는 무당의 춤사위와 무대 양쪽 사이드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춤을 추는 속죽 인현황후와 장희빈의 독무도 눈길을 끈다. 동아콩쿠르 수상자인 속죽 역의 김재승과 무당 역의 최서열의 연기는 기대해도 좋다.

▲ 광주의 시선-‘천개의 공감’(30일)

이번 예술제에서는 광주 무용의 현재를 보여주는 '무한가능'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로알발레단의 '투아호'(안무 박선희)와 광주현대무용단의 '천개의 공감'(안무 박종남) 두 작품이 선보인다.

그중 '천개의 공감'은 오는 18일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는 작품으로 의지와 상관 없이 얽혀 돌아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 풀어놓은 작품이다.

무대 천정에 매달려 있는 여주인공과 부유하는 듯한 무용수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다섯개의 문과 커다란 시계추 등 다양한 세트를 배경 삼아 역동적인 몸짓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티켓가격 5만원~2만원.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문의 062-654-8722. http://www.gipaf.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한 율림의 필체

정광주 서예인생 40년展...13일까지 대동갤러리

힘차고 강한 율림의 서체로 주목받고 있는 서예가 금초 정광주(광주미술협회)씨가 오는 13일까지 광주대동갤러리에서 서예인생 40여 년을 되돌아보는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전통 서예작품과 활동 등을 이용해 글씨를 쓴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신작 등 6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붓끝을 떠나 힘차게 새겨진 글씨체의 아름다움도 볼만 하지만 글씨에 담긴 철학과 뜻도 삶의 교훈을 준다. 음악적인 리듬과 경쾌함이 느껴지는 서체와 투박한 필법을 통해 서예의 현대성을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 다양한 재료 실험을 통해 화선지와 먹에 국한했던 서예 장르의 지평을 넓힌 점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붉은 파라핀 위에 빠르게 글씨를 쓴 뒤 중



‘음덕’

이에 붙이거나, 황동판에 글을 쓰고 부식시키는 에칭(etching) 기법으로 완성한 작품이 눈에 띈다.

그는 조대부고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전, 전남도전 초대작가를 지냈으며, 광주미술협회 회장, 광주·전남 서예예술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가 꼭 부르기

오늘 호신대 '티브리운'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열리는 '광주 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 행사가 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화대학교 '티브리운'에서 열린다.

'그 진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별', '아, 가을인가', '산들바람', '그리워' 등 친숙한 가곡들을 함께 부르고 이수인 시, 이수인 곡 '사랑의 노래'를 배워본다. 또 범맹자씨가 노

유섭 시 '사랑할 때'를 낭송하며 이경윤·김민숙·박진영·송덕형씨 등 회원들의 솔로무대도 준비돼 있다. 차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문의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르신을 위한 도서전시회

광주일곡도서관 16일까지

돌보기 없이도 잘 보여요.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대활자본 도서를 전시하는 '대활자본 도서 전시회'를 오는 16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되는 대활자본 도서는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책들을 선정해 뒤 활자를 크게 해 특별 제작한 책들로 문화, 건강, 고전, 역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 20여 권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관, 도서관에 문화작가 파견' 공모사업에 일곡도서관이 선정돼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문의 062-575-34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주식매입권 신드림투어</p> <p>광주·전남·충남·충북·충청도</p> <p>1박 2일 1인당 134,000원</p>	<p>신드림투어</p> <p>1박 2일 1인당 134,000원</p>	<p>신드림투어</p> <p>1박 2일 1인당 134,000원</p>	<p>신드림투어</p> <p>1박 2일 1인당 134,000원</p>	<p>신드림투어</p> <p>1박 2일 1인당 134,000원</p>
--	---	---	---	---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

★ 제주 골프 특선 ★

- 황사면 해비치 리조트 32명 + 해비치

해비치CC 이용 + 해비치CC 이용

₩189,000원
- 하문 골프텔 34명 + 세인트로CC

하문CC 이용 + 세인트로CC 이용

₩299,000원
- 특급 호텔 2인실 + 정문CC

정문CC, 세인트로, 하문CC, 하문CC, 하문

₩309,000원

올레길 + 신제주 관광 명소

▶ 관광호텔 2인실 ₩199,000 ▶ 특급호텔 2인실 ₩259,000

₩200이상 숙박 보충 혜택 20명 한정

대한항공 제주항공 02-322-8901 | 제주항공 010-3613-7810